

# 펠로시 대만 방문...미·중 갈등 전면전 치달나

### 펠로시, 중국 인권 비판해온 '매파' ...아·태서 중국 압박 의도 중국에 대만은 영토 일부...미국은 '보호성' 유지하며 견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군사적 조치까지 예고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에도 2일 밤 대만 땅을 전격적으로 밟았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뉴트 그리치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일행은 태운 C-40C 전용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대만 쑹산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시간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항로를 피해 우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이 이뤄지자 곧바로 대만을 사위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무력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양국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 또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왜 강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CNN 방송, 뉴욕타임스(NYT), AP통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배경과 양국 반응, 군사 충돌 가능성 등을 정리했다.

-펠로시 의장은 누구인가.  
▲ 현재 미국 의회 내 민주당 일인자로, 1987년 캘리포니아주에 출마해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그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향한 강경 기조를 이어왔다. 30여년 전인 1991년 베이징 헨안면을 방문해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에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추모 성명을 낭독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도 반대했다. 2019년에는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행을 고집한 이유는.  
▲ 원래 4월에 대만을 방문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서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들만 대만을 찾았다. 펠로시 의장이 보기에 대만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대만은 민주주의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요소도 대만행의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 중국이 '불장난'에 비유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당 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다. 올 가을 열리는 당 대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지금까지의 '10년 집권'을 넘어서는 장기 집권 길에 들어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를 봉쇄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시행한 시 주석은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선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국가주의를 추진해 왔다.  
국가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 제국주의에 패배하고 오랫동안 고립된 역사를 겪은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이전 중국 지도자들과 비교해 대만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의회)에 도착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 면담·오찬, 입법원·인권박물관 방문,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만에 미국 하원의장이 자국 동의 없이 방문하는 것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른가.  
▲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언급한 '하나의 중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보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견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과 단교한 상태다. 중국에 대만은 자국 영토의 일부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을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을 중요한 교두보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의존하는 반도체 강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미국은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찬성하지만, 안보·경제 여건상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도가 담긴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면서 대만의 무력 점령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 발생한 미 켄터키주 2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페리카운티의 로빈슨 초등학교 주차장이 쓰러진 나무와 진흙으로 뒤덮여있다. 켄터키주 애플라치아 고원지대에 폭우가 쏟아지며 홍수가 발생해 30여 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첫 곡물수출선 이스탄불 도착

### 5개월만에 처음으로 흑해 출항

러시아의 침공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흑해를 통해 출항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이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튀르키예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2만6천t을 싣고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호는 이날 밤 9시께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 주변에 정박했다. 라조니호는 출항 초반 기뢰 위험 탓에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인 탓에 애초 예정된 이날이 아닌 3일 0시 이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 해역을 빠져나온 뒤 속도를 높여 첫 예상 일정대로 도착하게 됐다.  
이스탄불에서는 3일 오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로 구성된 공동조정센터(JCC)에 의해 선박 검사를 받게 된다.

JCC는 선박에 곡물 외에 무기 등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 실렸는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라조니호의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라조니호가 지중해를 거쳐 목격지인 레바논 트리폴리에 도착하게 되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개월여 만에 흑해를 통한 첫 곡물 수출이 무사히 완료되게 된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가 봉쇄돼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최대 2천 500만t가량이 흑해 항만에 묶이면서 세계 식량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후 지난달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JCC가 수출 입 절차 전반을 관리하도록 합의하면서 전쟁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 1일 라조니호가 오데사에서 첫 수출길에 올랐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앞으로 하루에 한 대팔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선이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 이르면 오늘 시작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데 이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방류 시설 공사에 동의하면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 등 관련 지자체는 2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에 필요한 설비 공사를 하는 데 동의했다고 현지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공사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도쿄전력은 이르면 4일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한다.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내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30~150t가량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바다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해저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방류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지 어민단체 등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원자력규제위가 지난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하자 한국과 중국 정부도 해양 방출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총리의 '천기누설' 핵무기 보유 이례적 암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암시하는 이례적인 발언이 이스라엘 총리 입에서 나왔다고 2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보도했다.  
아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 총리는 1일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IAEC) 신임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 이스라엘의 핵능력을 시사하는 '다른 능력'을 언급하며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라피드 임시 총리는 "우리의 (군사)작전 무대는 방어력과 공격력, 그리고 해외 매체에서 '다른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러한 '다른 능력'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며,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를 존속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60년대에 핵 기술을 개발해 핵무기 수 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으로 추정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라피드 임시 총리의 이번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연합뉴스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